

광림 뉴스레터

KWANGLIM NEWSLETTER



세계 감리교 지도자들, 호렙산 기도회 참석

한국 교회 영성에 감동, 광림교회에서 미래 목회 대안 찾아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제38회 호렙산 기도회가 후반부에 접어들며 성령의 더욱 깊은 은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김정석 감독회장은 호렙산 기도회에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아가자. 성경에서 말하는 새벽은 절망과 좌절, 삶의 끝자락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삶을 회복케 하신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때 두려움을 넘어서 맡겨주신 사명으로 담대히 걸어갈 수 있다”라고 말했다.

올해는 특별히 해외 각국의 목회자들이 한국을 방문해 매일 새벽 열리는 호렙산 기도회의 은혜에 동참했다. 140년 전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해 주었던 나라들이 이제는 복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은 광림교회의 뜨거운 기도 현장을 찾고 있다.

세계 각국 감리교 지도자들은 한국 교회의

역동적인 영성과 목회 시스템을 배우고 있으며, 광림교회는 글로벌 감리교회의 영적 네트워크 중심지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미국·브라질 목회자, 세계감리교협의회(WMC) 대표단 방문

6월 16일(화) 미국 뉴저지연회 감독 일행 11명이 호렙산 기도회에 참석했다.

이어 6월 22일(월)~7월 2일(목)까지 미국 연합감리교회(UMC) 오하이오연회 소속 목회자 39명이 광림교회를 방문 중이다.

오하이오연회 목회자들은 6월 24일, 25일 성령 충만한 호렙산 기도회에 함께했다. 또한 광림교회의 목회 철학과 시스템을 다룬 세미나에 참석하며 성도들의 가정을 방문하는 ‘심방 동행’을 체험했다.

속회예배에 참여한 미국 목회자들은 “심방 목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깊은 돌봄과 치유, 상담 사역에서 미래 목회의 확실한 대안을 보았

다. 광림교회가 펼치고 있는 세계 선교의 비전에 큰 도전을 받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브라질감리교회 감리사와 지도자 8명도 광림교회를 찾았다. 감리사와 지도자들은 6월 27일 호렙산 기도회에서 은혜를 나누었고, 현지 목회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목회 시스템과 평신도 훈련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서울에서 개최된 세계감리교협의회(WMC) 각 지역대표 모임에 참석한 감리교



해외 목회자들 심방 목회 동행

지도자들도 광림교회를 방문해 6월 27일 호렙산 기도회에 동참했다.

감리교 지도자들은 이른 새벽부터 성전을 가득 채운 성도들이 뜨겁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모습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WMC 대표단 총무인 레오 목사는 “새벽 시간에 이렇게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보기 드문 감동적인 장면이다. 광림교회 호렙산 기도회를 통해 한국 교회의 살아있는 영성을 몸으로 체험했다”라고 밝혔다.

한국을 방문한 오하이오연회 목회자들과 브라질감리교회 감리사와 지도자, WMC 지도자들은 6월 28일 주일 3부 예배에 참석한다. 광림교회 예배와 대표적 기도 운동인 ‘호렙산 기도회’는 외국 목회자들에게 큰 영적 감동을 주고 있다.

소현수 기자

끝을 넘어서는 믿음

“우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시매 일어나는지라”(마 9:25)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히 11:1) 보지 못하고 더 나아가 볼 수 없기에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끝나면 맹목적인 믿음으로 끝이 납니다. 깊어지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인식의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려 주셨고, 그 십자가의 은총을 바라볼 때마다 나를 사랑하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러한 인식 위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요, 기독교가 말하는 참된 모습의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치유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열두 해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나타나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으로써 병이 낫게 되고 이 일로 인하여 아이로의 집으로 가는 발걸음이 늦어지게 됩니다. 시간이 조금 지난 뒤, 예수님께서 아이로의 집으로 향하던 길에 그의 집으로부터 사람이 와 길을 멈추게 하고 아이로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눅 8:49). 예수님께서 도착하시기 전에 딸이 죽었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생각한다면 혈루증 여인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눅 8:50)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발걸음을 재촉하시어 아이로의 집에 도착하여 어린 소녀를 보시고 “아이야 일어나라”(눅 8:54)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끝에서 새롭게 회복시키시고 기적을 베풀어 치유하신 기적의 사건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회당장 아이로의 딸의 죽음에서 생명을, 그리고 회복과 더불어 치유의 역사를 베푸시게 하였던 믿음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 살아있는 믿음이 절망을 넘어서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간단하게 딸이 죽었음을 기록하고 있지만, 누가복음 8장 50절에는 딸이 죽었다고 하인으로부터 전갈을 받은 아이로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아이로에게 말씀하신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은 것에 대한 신념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하나님에



마태복음 9:18-26

18.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엔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19.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20.열두 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겹옷 가를 만지니 21.이는 제 마음에 그 겹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대 함이라 22.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23.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24.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25.우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시매 일어나는지라 26.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대한 절대적인 신뢰, 이것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확신이기도 하고 인적에 대한 신뢰가 믿음입니다. 회당장 아이로가 어떻게 예수님께 나왔습니까? 예수님의 이적을 믿는 믿음, 즉 다른 사람에 의해서 들었던 객관적인 사실에 의거하여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대단한 믿음이지만, 이것으로는 기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내 것으로 만들 때 역사가 일어나며,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2000년 전의 사건이 오늘 내 삶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요, 여기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둘째,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믿음 가운데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이로와 함께 가셨습니다. 아이로의 걸음에는 소망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걸어가는 중 예기치 못한 사건을 만나 결국 딸이 죽게 됩니다. 예수님은 왜 아이로의 집을 가는 도중 예기치 못한 사건을 허용하시고 걸음을 지체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지체하신 이유는 아이로의 믿음의 중심을 되돌아

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이로가 예수님께 나온 동기가 단순히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함인지, 예수님의 능력으로 삶의 일시적인 괴로움과 절망을 해결하기 위함인지 되돌아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새벽을 깨우며 호렙산 기도회에 참여하여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하지만, 응답이 들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도에는 응답하시지만, 유독 내 기도에만 응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내 기도에만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한 번 돌아보라는 하나님의 응답이신 것입니다.

기도에 더디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이유는 굳센 믿음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일시적이고 감정적인 믿음이 아니라 흔들림 없고 참고 견디어 내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 간다는 것은 살아있는 성장의 관계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동행의 여정 가운데 믿음의 참된 모습인 자기부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자기부정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로 나타나게 되며 여기에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철저한 자기부정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을 비워 자신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채우는 것, 이 믿음을 갖고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인생에 새로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복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셋째, 변함없는 믿음의 사람에게 기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막 5:35).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살아있는 믿음도, 자기부정을 통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도 자신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에 소망과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가셔도 소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망 가운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막 5:36). 어법을 보면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궁극적인 절망 가운데서도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믿으라” 아무리 절망과 좌절이 인간의 능력의 한계가 우리를 둘러 싸고 있다 할지라도, 삶의 무기력함과 어둠이 몰려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지라도 주님은 우리 곁에 오셔서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 치유함과 더불어 기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죽은 딸을 향해 잔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그리고 “소녀야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시어 절망 가운데서 다시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처럼 살아있는 믿음, 자기부정을 통하여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변함없이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견고한 믿음을 지키며 믿음으로 한계를 넘어서 극복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감독회장 김 정 석
kwanglim-sp@hanmail.net

김정석 감독회장의 설교는 광림교회 홈페이지(www.klmc.church) 및 유튜브에서 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광림교회 주일설교를 팟캐스트를 통해 청취할 수 있습니다.

김정석 감독회장, 버지니아연회 초청 받아

동반자로 함께 세계 선교에 힘써 나아가길 강조해



김정석 감독회장이 연합감리교회(United Methodist Church, UMC) 버지니아연회(Virginia Annual Conference, 수 하우퍼트-존슨 감독 Sue Hauptert-Johnson) 초청으로 버지니아연회를 방문해 연설했다.

지난 6월 17일부터 20일까지 버지니아주 해리스버그(Harrisonburg)에서 개최된 '제244회 버지니아연회'의 내빈 자격으로 등단한 김

정석 감독회장은 영어 연설을 통해 한국감리교회와 연합감리교회가 동반자 정신으로 더욱 합심하여 세계선교를 이끌어 가자고 역설했다.

140년 전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한 아펜젤러 선교사의 헌신과 희생에 관해 언급하고 그가 뿌린 씨앗이 자라고 열매를 맺어 현재의 감리교회가 되었다며 한국감리교회의 교세를 언

급했다.
이어 세계가 처해 있는 위기 상황, 곧 전쟁과 테러, 인종차별, 경제적 불평등, 정치적 분열, 세속주의 등으로 신앙공동체마저 위협받고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로의 다름을 포용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하며,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계속해서 존 웨슬리의 신앙유산인 '개인 성화' 추구로 상처받은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눔으로서 '사회 성화'도 실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한국감리교회와 연합감리교회가 감리교회의 특징인 연합주의와 연대정신을 발휘해 동반자로서 함께 세계선교에 더욱 힘써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연설을 마친 김정석 감독회장은 준비해 간 한국 도자기로 만든 성찬기를 버지니아연회 수 하우퍼트-존슨(Sue Hauptert-Johnson) 감독에게 선물했다.

권순정 목사(목회선교지원실)

호렘산 기간 선교구 연합 속회

호렘산의 은혜, 토요일 선교구 연합속회로 이어지다

호렘산 기도회의 뜨거운 영적 열기는 토요일 선교구 연합속회를 통해 더욱 깊어지고 있다.
4선교구, 7선교구, 9선교구는 매주 오전 6시 연합속회로 모여 기도의 열기를 이어가고 있다.
4선교구는 10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 눈물로 중보기도를 드리고, 7선교구는 말씀 중심으로 부흥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으며, 9선교구는 아침 대신 모은 식비를 잠비아 선교센터 건축헌금으로 봉헌할 예정이다.

10선교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기도를 삶의 습관으로 삼을 것을 권면했고, 8선교구는 교회 인근 복음화를 위해 결단하며 기도했다.

5선교구는 원거리의 여건 속에서도 '멀리서도 모이는 선교구'의 모습을 보였고, 6선교구는 호렘산 말씀 카드를 제작해 삶 속에서도 말씀을 늘 기억하며 실천하고자 한다.
1선교구, 2선교구, 3선교구도 27일 연합속회

를 통해 한자리에 모여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호렘산 기도회를 통해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었다

말씀과 기도, 찬양과 나눔으로 모인 성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받은 은혜를 고백하며, 광림의 토요일을 기도의 기쁨과 소망으로 채워가고 있다.

박희윤 기자



4선교구



6선교구



7선교구



8선교구



9선교구



10선교구

포토 뉴스



제38회 호렘산 기도회
6월 1일 ~ 7월 10일까지
제38회 호렘산 기도회가
40일간 진행되고 있다.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가 7월 11일
~ 9월 12일까지 진행된다.



2026 하반기 속회공과
교구 전도사와 빛의 숲 서점에서
하반기 속회공과책을 구입할 수 있다.

감독회장 동정



- 6/1~ 제38회 호렘산 기도회
- 6/15 여장로회전국연합회 수련회 설교
- 6/17 강화 기도의집 개관식
- 6/20 버지니아연회 초청 연설
- 6/21 와싱턴 한인교회 주일 설교
- 6/24 오하이오연회 방문단 면담
- 6/25 WMC 총무 Leão Neto 면담
- 6/26 WMC 방문단 환영 만찬
- 6/28 은평교회 드림센터 봉헌예배

광림교회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www.klmc.church

 제38회 호렘산 기도회

하나님을 가까이



이 함이 복이라

2026년 6월 1일~7월 10일
| 매일 새벽 4시 45분





제38회 호렙산 기도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



기억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젊어서부터 아주 열심히 살았습니다. 제 힘으로 정직하게, 만짓 안 하고 최선을 다 해서 살면 잘 사는 줄 알았습니다. 당연히 바쁘고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서 막막하였지만, 늘 잠이 부족하여 졸면서 듣던 말씀이 다시 들리고 영상을 찾아서 듣게 되고, 속회, 선교회, 영아부를 섬기면서 틈틈이 삼위일체를 통해 말씀을 배웠습니다. 전도사님, 지구장님께서 권하시면 꼬리를 잡고 겨우 따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저에게도 말씀으로, 권면으

로, 이끄셨고 성장하는 저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아들과 작은 가게를 하면서 그동안 제가 알던 아이들이 아닌 그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에 관계를 먼저 세워주시고, 세상을 쫓아 바쁘게 살다가 놓친 아이들을 새롭게 알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찬송했습니다.

그러던 중 면접을 통해 취직을 하게 되어 너무 감사했습니다. 안정적으로 빚을 갚을 수 있기에 기뻐했습니다. 이제 이 직장에서 성도의 삶을 실천하리라 포부를 품고 출근하면서

도 날마다 작아지는 저에게 관계를, 사람, 하나님 시선에 집중하기를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한 가지 마음이 무거웠던 것은 십일조를 드림에 반내림으로 슬쩍슬쩍 넘어가기를 4개월째, 5월 마지막 주에 반올림으로 십일조 봉헌을 결단했습니다.

호렙산 첫날을 보내고 저녁에 면접 요청을 받았습니다. 정년 삭감 전의 연봉으로 같이 일하고 싶다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절망을 편셋으로 꼭 집어 옮겨 주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안이 병병하지만 이 또한 주님과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것이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지내며 편안하게 호렙산에 오르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예배에 빠지지 않고, 속회 예배를 드리며 은혜와 말씀을 놓지 않았던 기억이 힘이 되었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던 지구장님들과 영아부와 전도사님들과 목사님들을 만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긴 세월 동안 고집이 센 저를 놓지 않으시고 기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순애 집사(9교구)

일터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과 기도의 능력

이번 호렙산 기도회 기간은 부족한 저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그리고 기도를 통해 어떻게 승리하게 하시는지 체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호렙산 기도회 기간 중 화요일에 출국해 수요일에 해외 컨퍼런스 발표를 해야 하는 일정이 있었습니다. 산적한 회사 업무 속에서 틈틈이 발표를 준비하러니 마음만 분주하고 준비 시간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호렙산 기도회 첫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목사님의 말씀을 붙잡고, 저는 출장 준비 내내 속으로, 또 작은 소리로 틈틈이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힘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출국을 며칠 앞두고 팀원들과 리허설을 해보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개발 중인 AI 소프트웨어 데모가 속도도 느리고 중간에 멈추는 등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팀원들이 열심히 준비했지만 한계가 있었

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겠다는 깨달음 속에서 저는 지혜를 구했고, 다행히 실제 시연 대신 스크린샷으로 데모를 대체하고 시나리오를 매끄럽게 다듬어 첫 번째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현지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발표 전날 리허설을 해보니, 이번에는 발표의 방향성이 문제였습니다. ‘왜 AI를 썼는지, 이 기능을 자동화하는 데 무엇이 힘든지, 그래서 우리의 전략은 무엇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밤늦게까지 팀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장표를 대대적으로 수정해야 했습니다.

제 준비와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은 함께한 팀원들을 통해 아이디어와 해결책을 찾아주셨습니다. 나 몰라라 할 법도 한데, 밤늦게까지 자기 일처럼 헌신해 주는 팀원들의 모습 자체가 제게는 너무나 감사한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발표 당일, 한국에 있는 아내에게 발표 시간을 알리며 기도를 부탁했고, 아내는 교구 전도사님에게도 중보기도를 요청해 주었습니다. 세션의 첫 발표자로 단상에 섰을 때 속으로는 많이 떨렸지만, 중보기도 덕분인지 크게 당황하지 않고 무사히 발표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술적인 사고도 일어나지 않았고, 이어진 질문들에도 무난하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다른 업체들의 발표를 들으며 저희가 치열하게 고민하고 선택한 방향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한 것은 참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전날 밤늦게까지 수정했던 포인트들이 잘 맞아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저와 출장을 오면 쉴 틈 없이 일만 해야 하는데도 불평 없이 끝까지 따라와 주고 훗날 보고 자료까지 열심히 함께 만들어준 팀원들의 모습 속에서, 이 모든 과정을 이끄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세밀한 섭리를 느낍니다.

호렙산 기도회 8일 차에 들었던 말라기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신 말씀, 그리고 둘째 주에 선포된 ‘하나님의 무제한적이고 지속적인 사랑’이 이번 출장 내내 제 삶에 생생하게 다가왔습니다. 흠 많고 연약한 야곱을 택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던 것처럼, 많이 부족한 저를 그래도 사랑하시고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깊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13일차에 말씀하신 “기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다”, “기도야말로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처럼 저를 위해 중보해 주신 가족들과 전도사님 등 많은 분들의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치열한 일터 한가운데서도 저를 붙드시고 동행해 주신, 그리고 중보기도를 통하여 저희를 도와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송지석 권사(15교구)

AI보다 명쾌한 ‘호렙산의 응답’

저는 1996년, 온화한 미소로 가가호호 심방하시는 전도사님의 모습에 감동하여 광림교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후 참 많은 분의 사랑을 받았지만, 부끄럽게도 저의 신앙은 오랜 시간 제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던 2005년, 늦은 나이에 취업의 높은 벽 앞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단 하루 호렙산 기도회에 나아가 간절히 매달린 적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실력도, 경쟁력도 부족했던 저에게 은행 취업이라는 기적 같은 응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오직 어머니의 기도와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참으로 어리석게도 그 크신 은혜를 오래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AI(인공지능)가 상용화되자, 평소 컴퓨터를 가까이하던 저는 그 방대한 정보의 세계에 깊이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미래 예측, 상황 분석 등 하루 스물네 시간 동안 세세한 고민과 고충을 하나님이 아닌 AI에게 털어놓

고 답을 구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여쭙어보고, 확인한 후 행동해야 합니다.” 속삭이셨던 한정희 사모님께서 방황하던 저를 보며 늘 간곡히 권면해 주셨지만, 어느 순간 제 삶의 결정권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AI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내 지혜와 세상의 정보를 의지한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2025년 ~ 2026년을 지나며 자녀 문제, 영적인 침체, 건강 악화, 심지어 AI의 정보를 믿고 찾아간 병원에서 의료 사고까지 온갖 어려움이 폭풍처럼 밀려왔습니다. 가장 큰 충격은 평범한 중고 거래에서 물건을 정상적으로 전달하고 입금까지 받았는데, 불과 몇 시간 뒤 제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로 신고되어 모든 금융 거래가 정지되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어떤 문제든 제 정보력과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이번만큼은 꿈

짜없이 묶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철저한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사방이 가로막힌 캄캄한 절망 속에서, 제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던 전도사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조건 호렙산으로 나오세요.” 그 강권적인 말씀이 저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시 호렙산의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은혜가 임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무겁던 눈꺼풀이 번쩍 뜨이고,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제 굳은 마음에 스편지처럼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예배가 기다려지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이 제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호렙산에서 눈물로 회개하며 엎드렸을 때, 얽히고설킨 수렁 같은 문제들이 하나둘 기적처럼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을 것만 같았던 상황을 하나님께서 친히 역전시켜 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번 호렙산 기도회를 통해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AI는 수많은 데이터와 정보를 줄 수 있지만, 내 인생의 참된 방향을 결정하고, 메마른 영혼을 적시며, 절망 속에서 나를 다시 살려내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한 때에 주시는 기도의 응답이 훨씬 더 명쾌하고 정확했습니다.

이제 제 가슴은 다시 뚝뚝합니다. 아직 긴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이 터널의 끝에는 주님이 예비하신 빛나는 태양이 기다리고 있음을 확신하며,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헛된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가장 먼저 무릎을 꿇겠습니다. 미련하고 부족한 사람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호렙산의 은혜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조명원 성도(21교구)

인생 첫 트리니티, 세레, 호렙산 기도회

올해 1월 첫 주부터 광림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3교구 박은숙 성도입니다.

저는 2025년 2월 대장암 4기로 여러 곳에 전이되어 희망이 없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 교회에 다니지 않던 저는 병원에서 드리는 예배에 참석해 하나님께 묻고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회에 나가지 않아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요? 제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세요, 주님! 저를 버리지 마세요. 제가 꼭 가족들과 같이 하나님 성전에 나가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치료받던 중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암세포가 줄어 수술까지 받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약속대로 저는 아들과 함께 광림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저의 신앙생활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걱정도 많았지만 새가족위원들과 속회 공과를 매주 보내주고 계신 권사님처럼 교구의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시나브로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2026년은 제게 신앙적으로 특별한 의미의 해가 되고 있습니다. 선교구를 담당하는 선영진 목사님의 권유로 트리니티 성서대학원에 등록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첫해이고, 지난 5월엔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해이며, 처음으로 호렙산 기도회에 오르며 기도하게 된 첫해이기 때문입니다.

주일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랴’는 호렙산 기도회 주제를 보며 ‘나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다’는 진심 어린 열망이 생겨 평일엔 영상으로, 주말엔 교회에 가서 직접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호렙산 기도회에 처음 참석한 날, 다른 성도님들처럼 두 손 들고 힘차게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어색하기까지 해서 ‘하나님 저를 바라봐 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세 문장만 수십 번을 외치고 왔습니다. 할 수 있는 게 그것뿐이었지만, 하나님은 제 진심을 아신다는 듯이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선 ‘내가 너의 모든 상황을 잘 안다. 반드시 회복시키고 너의 어려움을 역전시키리라’ 찬양을 통해 말씀해 주시며 위로와 힘을 주셨습니다.

기도회에 참석하며 감독회장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된 기도 응답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작년보다 더 건강해진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예배에 한 번 더, 기도를 한 번 더 하며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있음을 느끼게 된 것이 가장 큰 감사이며 응답이라고 여기게 된 것입니다.

매일매일 새벽마다 눈 뜨게 하셔서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나를 넘어서 나라와 민족을 품고 눈물로 기도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박은숙 성도(3교구)

언제나 선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저는 30년 동안 한결같이 광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교회가 멀어 직접 가지 못할 때는 집에서 작정 기도와 호렙산 기도회로 영적 제단을 쌓으며 늘 하나님의 신실한 응답을 경험해 왔습니다.

아이들이 장성한 뒤로 제게는 큰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의 구원이었습니다. 다른 이들을 전도하는 일은 쉬웠지만, 가장 가까운 남편을 교회로 인도하는 일은 오랜 눈물과 기다림이 필요한 외로운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가 시작되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탁구를 시작했고, 우연한 계기로 집 앞 교회 탁구장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장로님께 성경 공부를 제안받은 남편은 뜻밖의 고백을 했습니다. “이왕이면 당신이 30년 동안 한결같이 다닌 광림교회로 나도 같이 가고 싶다”며 먼저 손을 내민 것입니다. 제 오랜 기도의 눈물을 아시는 주님께서 친히 행하신 기적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저는 얼마 후 크게 넘어져 입원하게 되면서 육체적인 고난의 시간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손잡고 성전으로 향하려던 발걸음도 잠시 지연되었

습니다. 낙심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주님은 병상에서 실시간 드리는 호렙산 기도회를 통해 이 고통의 시간을 오히려 주님과 더 깊어지는 은혜의 시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련의 터널을 지나고 나면 마침내 남편과 함께 성전으로 향하게 하실 주님의 계획이 기대되어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저는 이제 매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게 해 주십시오.’ 지나온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제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때로는 기다림으로, 때로는 고난으로, 때로는 예상치 못한 만남을 통해 응답해 주셨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변함없이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 가정을 강한 손으로 붙드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시편 46:10)

신실하신 주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오늘도 기대함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킵니다.

 이점분 권사(29교구)

복교회, 저희 가족에게는 광림‘복’교회

광림복교회에서 다섯 번째 호렙산에 오르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2018년 11월 의정부 민락으로 이사 온 후, 한동안 저는 감리교회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2021년 여름, 시원한 물을 나눠주며 전도하시는 광림복교회 성도님의 초대를 받아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복교회에 처음 등록할 시기, 허리가 너무 많이 아파 걸음도 제대로 걸을 수 없고, 겨우 주일 대예배 밖에는 드릴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고통은 가시지 않았지만, 담당 목사님의 권면에 따라 전도도 하고, 속회와 트리니티 성경공부, 호렙산 새벽기도회까지 순종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생각하며 믿고 따랐습니다.

광림복교회에서 맞이한 첫 호렙산 기도회에서 수십 년의 신앙생활이 무색할 정도로 짝 놀랐습니다. 영상 넘어 보이는 본당의 수많은 성도님들이 새벽을 깨워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에, 저 역시 첫사랑을 회복한 듯 감격과 기쁨이 충만한 것을 느꼈습니다.

날마다 목사님께서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라 하실 때마다 주님께서 반드시 치유해 주실 것을 믿으며, 그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음에 영광과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는 치유하시는 주님을 경험했기에, 5년이 지난 2026년 호렙산에서는 강건한 몸으로

참석하고 있으며, 교회에서 맡겨주신 직책과 사명도 충성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은혜는 가족에게도 흘러넘쳤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호렙산에 오르지 못했던 남편 권사는, 올해 하루도 빠지지 않고 힘든 기색 없이 잘 참석하고 있으며, 지병도 하나님이 주관하실 것이라는 기대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남양주 덕소에 살며 믿음 생활 잘하는 큰딸은, 남편 직장과 아들 학교가 구리라 장막을 두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올해 호렙산이 시작된 지 며칠 안되었는데 이 부모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장막을 구했습니다. 한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가 넘칩니다.

광림복교회가 저희 가족에게는 광림‘복’교회입니다. 기도할 때 주시는 응답이 계속되고,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응답만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를 지킬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희 부부는 교회 가까운 곳으로 이사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남은 생애, 광림복교회를 일치된 순종으로 섬기고, 충성으로 헌신하며, 저희가 받은 복의 간증을 나누며 살고 싶습니다.

호렙산에서 기도할 때 주셨던 축복을 기억하며 믿음의 여정을 담대히 걸어가고 싶습니다.

 강길순 권사(광림복교회 71교구)

최고의 것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

처음 모든 것이 낯설었던 제가 벌써 호렙산에 오른 지 7년 차가 되었습니다. 지난 7년 동안 기도의 제단 앞에서 믿음을 키워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은 제 삶 가운데 경험한 성령님의 역사, 그중에서도 방언 기도에 대한 은혜를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교회에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 방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신기하기도 했지만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가 나오면 의식적으로 멈추거나 끊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호렙산 기도회에서 하나님께서는 제게 새로운 깨달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는 권사님의 손주가 예술중학교에서 악기를 전공하고 있는데, 학교 행사 준비로 인해 중요한 콩쿠르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해 많이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마침 그 콩쿠르가 호렙산 둘째 날인 6월 2일에 예정되어 있어 권사님께서는 중보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저는 호렙산 첫째 날과 둘째 날 그 학생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방언 기도로 이어졌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마음으로 그 학생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중 성령님께서 제 연약한 기도를 도우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인 6월 5일, 권사님으로부터 그 학생이 금호 영재 콩쿠르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호렙산 기도회가 계속되는 동안 목사님의 은혜로운 말씀과 함께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깨달음은 저를 더욱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오후에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지인의 배우자로부터 한 통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었는데, 제가 평소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려보시기를 권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부산에 거주하고 계시고 교회도 처음 방문한 것이었는데, 그날 가까운 교회를 찾아 예배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따뜻한 환대를 받고 함께 식사도 하며 큰 위로를 받았다고 전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다음 주에도 다시 예배드리러 가고 싶다는 말씀을 들으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사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번 호렙산을 통해 저는 방언이 단지 개인의 신앙생활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고통받는 이웃과 영혼을 위해 성령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시는 귀한 중보의 도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시 9:1)

하나님을 처음 만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이 말씀에 깊이 공감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남은 호렙산 일정도 기대와 설렘으로 나아가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김하영 성도(광림남교회 51교구)



한눈에 명화로 보는 구약성경 이야기

30-1



여호수아와 라합

“여호와와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헛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

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수 1:1~9)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대적인 지도자였던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눈을 감았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벗어났지만, 앞날이 막막했다. 이들은 모세로부터 가나안 땅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땅이니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축출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을 명받았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던 탓에 40년간 광야를 떠돌아야만 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탈출하고 곧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었다. 이때 정보를 얻기 위해 가나안에 보낸 12명의 정탐병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는 바로 침공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나머지 10명은 ‘가나안에 가면 모두 죽는다’며 백성들을 선동하였다.

이에 하나님의 분노를 받아 40년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를 전전하는 벌을 받은 것이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으라고 명하였고, 모세가 눈을 감자 여호수



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새로 준 이름으로 ‘하나님의 구원이시다’라는 뜻이다.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에 앞장섰다. 한 세대 전만 하더라도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두려움에 떨었던 유대인들은 이제 4만 명이라는 막강한 군대를 조직하게 되었다.

여호수아는 전투를 벌이기 전에 신중한 계획을 짜두었다. 먼저 싯딤에 본부를 설치한 후 여리고에 두 사람의 정탐병을 보내며 명령했다. “여리고 성내에 진입하여 가장 취약한 곳을 물색하여라.” 여호수아의 명대로 두 정탐병은 여리고 성으로 몰래 침입해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머물면서 자신들의 임무를 펼쳐나갔다. 그들은 여리고 성벽의 강도를 조사하고, 병사들의 사기와 동태를 지켜보면서 정보들을 모았다.

이때 낮선 이방인을 수상히 여긴 사람들이 그들의 출현을 여리고의 왕에게 알렸다. 즉시 여리고의 병사들이 라합의 집에 들이닥쳐서 두 정탐병을 찾고자 가택 수사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라합은 생각과는 달리 매우 신뢰할 만한 여인이었다. 그녀는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는 곧바로 두 정탐병을 평평한 지붕 위로 데려가 삼대 아래에 숨겨주었다. 다른 집의 지붕에도 삼대가 있었기 때

▲ 라합과 두 정탐병_ 여호수아가 보낸 두 명의 정탐병은 낮에는 성안의 지리와 적의 동태를 살피고 밤이 되면 라합의 집에서 안전하게 숨어 지냈다.

이탈리아화파 작품

문에 병사들은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들은 성의 이곳저곳을 수색했으나 수상한 사람을 찾을 수 없었고, 결국 거짓 정보라는 결론을 내렸으며 여리고 성은 다시 고요해졌다.

이윽고 라합은 대마로 만든 붉은색 밧줄을 들고 지붕으로 올라왔다.

“이 밧줄을 성 밖으로 내려다 드리지요. 이제는 성벽을 감시하는 자가 없으니 쉽게 도망칠 수 있을 겁니다. 나가면 언덕으로 가세요. 그러면 강을 건널 수 있을 겁니다.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오늘 목숨을 살려드렸으니 이 성을 점령하는 날에 나와 우리 가족, 내 동료 모두의 안전을 보장해 주세요.”

 광림 뉴스레터



◀ 정탐꾼을 도와준 라합_ 유대 민족과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믿음을 가진 라합이 두 정탐병을 돕고 있는 장면이다.



* 게재된 글의 저작권은 출판사 아이템하우스에 있으며 광림뉴스레터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 문의: 빛의 숲 서점(02-2056-5771)

